2026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 · 성과발표 II 참여기업

따뜻한 한 끼로 문을 열고, 문화로 마을을 잇다

—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부산 통합돌봄 생태계의 마중물이 되다 —

통합돌봄 식사지원 · 현장 사례 발굴 · 부산형 케어컬처 링크워커

2026. 12. 1.(화) | 서울스퀘어 4층 상연재 | 발표 김평수 이사장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RISE 사회혁신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Innovation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Jipangee Social Cooperative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진흥원이 제시한 참여기업 발표 순서를 따라갑니다.

1

참여계기

왜 이 사업에 참여했는가

2분

2

무엇을 했는가

맡은 역할과 대상자 · 지역과의 관계

3분

3

기업에 남은 것

역량 · 관계 · 사업 기회의 변화

3분

4

사회연대경제

기업이라서 가능했던 것, 그리고 내년

2분

문 앞에서 본 것

저희의 출발점은 도시락을 들고 두드린 어르신 댁 현관문이었습니다.



"

도시락은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온당 · 통합돌봄 식사지원 현장

1

북구에서 원도심 · 연제구로

북구청과 화명 · 금곡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이웃을 만났고, 전략사업에서는 원도심 · 연제구를 맡았습니다.

2

문 앞에서 만난 것

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말을 걸어 줄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연결이었습니다.

3

밥과 관계를 한 번에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으로서 끼니와 관계를 함께 채우는 돌봄을 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끊기던 연결, 생태계로 잇다

기관 하나의 힘으로는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 가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할 때

발굴 · 연계 · 사후관리가
기관마다 따로 움직이며
자꾸 끊겼습니다.

지역생태계 사업

총괄수행기관 · 거점 복지관 ·
참여기업이 한 판에서
함께 움직일 틀이 생겼습니다.

지팡이의 자리

식사와 사람(링크워커)으로
연결의 첫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성장에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 일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밥을 나르는 일이 사례 발굴로, 다시 사람을 키우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통합돌봄 식사지원

「모두의 한끼」 — 대상자 맞춤 도시락을 정기 배송

선한 공헌활동

사업 범위를 넘는 끼니 지원과 나눔을 함께 실천

지팡이

현장 사례 발굴

배송 현장에서 만난 위기 · 고립 가구를 거점과 연결

케이쳐 링커 양성

노동통합 — 부산형 케어컬처 링크워커 교육

통합돌봄 안에서 문화돌봄도 함께했습니다

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돌봄 — 몸 · 향기 · 이야기로 관계를 잇습니다.



「삼림(三林)」 문화예술돌봄

북구 만덕권 통합돌봄 어르신 11명 · 9회기 (11/16~12/4, 주 3회)

움직임 중심 통합예술 — 내림 · 울림 · 살림

문화돌봄 프로그램 3종

움직임 · 향기 · 이야기 — 1인 1회, 한 번의 만남으로 완결

케이쳐 링커 강사진이 문화돌봄 매개자로 함께

→ **밥을 나르던 문이, 함께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부산형 링크워커 「케이쳐 링커」를 키웠습니다

찾고 · 이음하고 · 문화로 처방하는 사람

4개 권역 · 5개 거점
북구 · 원도심(중구 · 동구) · 연제 · 해운대

3일 · 9회차 · 24시간
이론 + 케이쳐 다이닝 + 문화예술 실기

170명 참여
부산 거주 시민 · 12월 11일까지 진행



이론
사회적 처방과 링크워커를 이해합니다



케이쳐 다이닝
함께 밥을 먹으며 관계를 엽니다



문화예술 실기
문화로 이웃을 만나는 방법을 경험합니다

수료 후 → 통합돌봄 사전 조사원 · 돌봄 라이더 · 거점 활동가로
밥(1차원적 욕구)과 문화(관계의 욕구)를 한 식탁에서 함께 채우는 부산형 모델

막혔던 지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잘된 점만큼 막혔던 지점을 함께 나눕니다.

막혔던 지점	무엇이 어려웠나	어떻게 풀었나
교육생 모집	짧은 기간, 3일 연속 참여 부담	신청 자격을 '부산 거주 시민'으로 넓히고 거점 일정에 맞춤
권역별 일정 · 강사	5개 거점의 일정과 강사 일정이 겹침	권역별 동시 운영, 강사 풀을 넓혀 날짜별로 재편성
식사지원 사각지대	주말 공백, 주간보호 이용자 저녁 식사	금요일 주말 반찬 지원, 주간보호센터를 거쳐 전달

※ 실제로 가장 힘들었던 2~3가지로 바꿔 넣으세요.

같은 도시락에서, 사람에 맞춘 식사로

식단의 변화와 고도화 — 대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전

모두에게 같은 한 끼

한 가지 식단으로 일괄 배송



일반식

흰밥 + 국 + 반찬 4가지

1 · 2 · 3주차 순환 식단



항암 환자식

흰밥 + 국 + 5찬

1 · 2주차 순환 10일분



삼키기 힘든 분

죽 + 반찬 4가지

연하 곤란 맞춤 5일분

개발 중

당뇨식

혈당 관리를 위한 맞춤 식단

현재 개발 중

돌봄 라이더가 자랐습니다

도시락을 나르던 사람이 이웃을 살피고,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 배달하는 사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집에
도시락을 전합니다.

2 안부를 살피는 사람

문 앞에서 어르신의 오늘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3 잇는 사람 · 링크워커

필요한 도움을 발견해
거점과 연결합니다.

라이더 이야기 — [라이더 한 분의 변화를 한 줄로]

파트너 거점으로 네트워크가 넓어졌습니다

권역마다 거점 복지관과 손잡고, 다음 사업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에 남은 사업 기회

「링크 유니버스」

거점 복지관 · 링크워커 · 문화예술인을 잇는 사회적처방 플랫폼 겸 협의체

해마다 쓰는 링크워커 교재

2027 개정판으로 정리, 다음 기수에도 그대로 활용

링크워커 민간자격

수료증을 넘어 자격을 주는 기관으로

함께 모여, 식사지원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제구 · 원도심 · 북구 · 해운대에서 식사지원을 맡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 미더덕협동조합 — 백석 —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통합돌봄 식사지원 표준화 연구개발 회의 · 네트워킹 형성

식사지원 매뉴얼 연구개발

식단 · 조리 · 배송 · 안부 확인까지
, 통합돌봄 식사지원의 공통 기준

돌봄 라이더 운영 모델

배달을 넘어 안부를 살피고 있는
라이더의 역할과 운영 방식

후배 기업 진입 가이드

처음 식사지원에 들어오는 기업이
덜 헤매도록 길을 먼저 정리

통합돌봄 식사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접수부터 배송 · 안부확인 · 회신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한 현장 표준입니다.



누가 맡아도 같은 밥 · 같은 안부 · 같은 기록

36쪽
6개 장 · 2026. 11. 발간

5개 영역
기획·조리·배송·권익·교육

서식 11종
현장에서 바로 쓰는 양식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 4대 핵심 지표

만족도	위생 적합률	고충 발생률	서비스 이행률
85점 ↑	100%	0.1% 미만	99% ↑

→ 후배 기업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식사지원 표준 · 반기 1회 정기 개정

지역에 온전히 스며드는 협동조합

우리는 납품업체가 아니라, 이 마을의 이웃입니다.



이윤보다 끼니 먼저

사업 범위를 넘어서도 필요한 곳에 한 끼를 보태는 선한 공헌활동



예술인이 이웃으로

문화예술인 조합원이 돌봄 현장에 직접 들어가 관계를 엽니다



주민이 주민을 잇다

링크워커 · 돌봄 라이더 모두 이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년 사업이 이어진다면,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해보니 됐던 것은 넓히고, 어려웠던 것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1 교육 시기를 앞당기기

연말 집중 운영 → 상반기 시작

2 수료 이후 일자리 연계

사전 조사원 · 돌봄 라이더로 바로 잇는 구조

3 거점 협약 공식화

「링크 유니버스」 협약식으로 관계를 제도화

4 링크워커 민간자격

수료증을 넘어 자격 부여 기관으로

5 배송 인프라 보강

차량 1대 · 주말 미운영의 한계 보완

6 대상자 정보 공유 체계

중복수혜 확인과 거점 간 정보 공유

한 끼가 관계가 되고,
관계가 마을의 돌봄이 되도록

지팡이가 계속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사회적협동조합
Jipangee Social Cooperative

감사합니다

지팡이사회적협동조합 · 문화돌봄플랫폼 온당